합미산성 문화재 지정 위한 학술대회

진안군, '발굴조사 · 성과' 주제 열려… 내년 3월 전북도 기념물 신청 예정

진안군은 마령면 강정리에 위치한 '합미산성'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9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은 마령면 강정리에 위치한 '합미산성'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9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진안 합미산성의 발굴조사와 성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진안 합미산성은 2019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정밀지표조사를 시초로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차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문지와 건물지 등이 조사됐으며 성벽 조사를 통해 성벽이 축조된 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했다.

진안 합미산성은 삼국(백제)시대에 초축돼 후백제시대까지 운영된 산성으로 신라나 가야가 섬진강 유역 및 서해안 일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과 주화산에서 발원한 세동천, 마이산에서 발원한 은천 등의 지류가 합미산성이 있는 월운마을에서 합류하여 서쪽으로 흘러가 이 일대에 '마령들'이라 불리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이 곳의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한 곳에 합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합미산성은 6세기 정도에 백제에 의해 축조된 산성으로 다른 지역의 산성에 비해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백제에서 후백제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성벽 축조 방식의 변화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합미산성의 진입로가 마이산 종주 코스의 초입에 해당되며, 주변에 삼계석문 암각서, 쌍벽루, 진안 강정리 근대한옥, 수선루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문화유산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김미란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의 '진안 합미산성의 구조와 운용 시기', 김병남 전북대 교수의 '진안 합미산성 축조 배경과 의의',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의 '진안 합미산성의 의미와 가치',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의 '진안 합미산성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재운 전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서정석 공주대학교 교수, 성정용 충북대학교 교수, 심광주 LH토지주택박물관장, 엄기일 진안역사박물관 학예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안군은 내년 3월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신청 예정이며, 지정될 경우 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결합을 통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 합미산성의 발굴조사와 그 성과를 통해 진안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진안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진안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결혼식 그리고 음악회' 따뜻한 감동 선사

장수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

장수군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결혼식 그리고 음악회'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장수한누리전당과 상주단체인 (사)예술담은나라 주관으로 진행된 '결혼식 그리고 음악회' 공연은 19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졌다.

공연은 결혼식 배경음악을 주제로 펼쳐지는 리얼리티 음악회로, 장수에 살고 계시는 최건, 조한금 어르신의 결혼 55주년을 기념해 에메랄드혼식이 진행됐다.

식전 축하 공연으로 라라랜드, 첨밀밀 ost가 연주됐고, 본식에는 카르멘 서곡, 바그너 결혼행진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전곡 클래식 협주 연주하여 가을밤에 군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2007년 장수로 귀촌해 시인, 수필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어르신은 직접 쓴 작품집을 공연 후 하객 답례품으로 증정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올해 추진한 공연들이 군민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공연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부 조한금 어르신은 세계기록유산등재자이며, 남편의 기자 생활 당시 5 · 18광주민주화운동 취재수첩과 본인의 일기장, 친정 오라버니의 일기장이 2011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의 가을을 품고' 문화 공연 '호응'

무주군이 '무주의 가을을 품고' 주제로 문화 공연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시간을 마련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19일 군청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무주의 지킴이들과 함께하는 '무주의 가을을 품고' 문화 공연은 기타연주를 비롯해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의 악기 연주와 노래로 군청앞을 찾은 군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가을철을 맞아 실시된 공연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술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보여주면서 생활의 활력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범현, 문우경, J-BAE, 지유진씨는 차례로 무대위에 등단해 '가을우체국 앞에서, 낙엽은 지는데, 끝이 없는 길' 등 가을 테마와 관련된 주옥같은 노래로 이곳을 찾아온 관객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연주도 관객들에게 감미로운 음률로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황인홍 군수는 "가을날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 시점에 일상의 가치와 자유가 가능한 가을 문화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지친 군민들에게 신선한 청량제가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보건의료원, 한의약적 월경통 극복교실 운영

무주군이 청소년을 위한 월경통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월경통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월경통 완화법을 제공하고 한의약을 이용한 관리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무주고등학교 보건실에서 매주 수요일(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5회) 무주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군이 관내 희망학교를 선정해 학교 보건교사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이번 한의약 건강교실은 공중보건한의사와 만성질환관리사, 그리고 정신건강관리사와 외부강사 등이 초빙된 가운데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한방치료(한방침, 부항)를 비롯해 한약 처방, 팔팩 만들기 등 한의약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선별검사(우울증, 스트레스) 및 상담, 통증완화에 좋은 요가 교실 및 생활습관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 추진상황 살펴

최훈식 군수가 20일에 계남면 호덕리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017년 장수군에서 유치한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은 69,900㎡의 부지면적에 소방항공대와 소방교육대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5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소방항공대는 올해 12월에 준공돼 완주군 봉동읍에서 장수군으로 이전되며, 소방교육대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훈련 시설과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항공대가 조성되는 사업인 만큼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전라북도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서 도내 겨울축제 사전 컨설팅 열려

20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등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축제 관계자들이 모여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라북도 겨울철 축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수요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됐으며, 전라북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진안 마이산겨울동화축제를 비롯해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등 겨울 축제 관계자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에 참석한 진안군 마이산겨울동화축제 관계자는 "3년만에 마이산에서 겨울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설렌다"며 "오늘 받은 컨설팅 내용과 여러 지자체 축제 관계자들과 나눈 의견들을 참고해 더욱 알찬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내년도 농번기 내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진안군이 10월 31일까지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먼저 모집한다.

신청은 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다.

지원자격은 농작업이 가능한 국민이며 농업분야 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1만원 가량이다. 일 8시간 근무 주 2회 휴무가 보장된다.

진안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근로조건 등은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윤재준 농업정책과장은 "농업특성상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가 있다"며 "내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인력난 해소 등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